

금강대학교, 제7대 총장 송희연 박사 퇴임식 개최



금강대학교 제7대 총장 송희연 박사의 퇴임식이 법인처장 정 장호 스님과 기획관리처장 신 거성 스님을 비롯, 전 직원과 교수,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2월 21일 오전 10시 금강대학교 사이버강의실에서 열렸다.

송 총장은 퇴임식에서 대학으로부터 지난 2년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헌신해온 노고를 치하하는 꽃다발과 감사패, 기념품을 증정 받았다. 이어, 전 직원과 함께하는 오찬을 통해 함께해 온 교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.

앞서 법인처장 정 장호 스님은 치사를 통해 "종단의 큰 기대를 받으며 성장해 온 우리 대학이 지난 2년 간 큰 위기 상황에 봉착했고, 송희연 총장님은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자리에 부임하셨다."며 "학교의 내일을 위

해 늘 걱정하시고 노력해 오신 덕분에 2019년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5개년 인증을 받는 큰 성과를 내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. 앞으로 금강대의 전 구성원이 노력하여 퇴임하시는 총장님께 학교의 희망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이어 송 총장은 퇴임사를 통해 “부족한 이 사람이 부처님의 인연으로 상월원 각대조사의 유지를 받들어 금강대학교에서 2년 동안 총장직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수행했다.”며 “금강대학교가 앞으로도 2021년 3주기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 대학에 선정 · 지속가능발전 사업의 지속 · 졸업생 취업률의 향상 ·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라는 4가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‘위기를 기회’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”이라며 학교 구성원들에게 남기는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.

송희연 총장은 지난 2018년 2월 제7대 금강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여 2년간 대학 발전을 이끌었고, 특히 2019년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5개년 인증을 획득하는데 기여하는 등 어려운 대학 여건 속에서도 곳곳이 직무를 수행하며 대학을 이끌어왔다.

[금강웹진] 박영서 sangmo2004@ggu.ac.kr